

<서평>

Mein Bibellexikon
**(Michael Jahnke, ed., Marienheide: Verlag Bibellesebund, in
Kooperation mit Deutsche Bibelgesellschaft und
SCM R. Brockhaus, 2012)**

임진수*

1. 들어가는 말

이후에 서술하고자 하는 <나의 성경 백과사전>(원제: *Mein Bibellexikon*)은 독일의 ‘성경 읽기 연합 출판사’(Verlag Bibellesebund)가 ‘독일성서공회’(Deutsche Bibelgesellschaft)와 ‘브록하우스 출판사’(SCM R. Brockhaus)와 공동으로 만들어 2012년 세상에 내놓은 것이다. 필자는 이 책의 서평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독일의 기독교 전통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느낀다. 예수께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은 어린이들의 관점에서, 성경의 세계와 시간 속으로 탐험을 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그 과정에서 만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해 보도록 계획되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우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성경에 나오는 간단한 표제어들을 설명하고 흥미진진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이 책의 발행인 안케(Michael Jahnke)는 독일 나이로 8살 어린이들부터 이 사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정도의 나이는 우리나라의 9살이나 10살의 어린이에 해당하며 초등학교 중반을 넘어서는 시기이다. 따라서 이 책은 지적 이해가 확장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이 어린이들을 배려하는 이 책의

* Kirchliche Hochschule Wuppertal/Bethel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mtsij@snaver.com.

입장은, 이 책의 필진이 교회와 공동체와 학교와 가정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종사하는 100여명의 전문적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에서 드러난다.¹⁾

이 책의 발행인 양케는 서문에서 이 책의 집필 의도를 이렇게 밝힌다. “어린이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에 관해서 ... 스스로 생각해 보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어린이들을 초대하는 것이다.”²⁾ 이것을 위해서 이 사전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약 1,400개의 표제어들을 어린이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그림들(삽화들)³⁾과 이모티콘, 다양한 색과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설명 방식은 일방적인 전달이 아닌 대화의 방식이라 8살 이후의 어린이들이 스스로 성경의 탐험가가 되도록 자극하고 있다. 필자는 이런 사실들을 주목해 보면서 이 책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해 보고자 한다.

2. 성경에 나오는 표제어들에 관한 사전의 설명 방식

이 사전은 성경에 나오는 표제어들을 알파벳 순서로 배열하여 설명해 나간다. 그리고 그 각 표제어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표제어들의 범주를 대략 10개로 나누어서 설명해 나간다. 그 표제어들의 범주는 이모티콘과 삽화와 실제 사진, 지도, 성경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놀이와 실제적인 체험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인물과 인물군, 2) 짐승들, 3) 식물들, 4) 도시들과 인간들이 만든 건축물, 5) 장소, 소재지, 지역 6) 산들과 산악 지대, 7) 일상생활, 8) 축일과 종교, 9) 신앙으로부터 나오는 개념들과 신과 함께하는 생활, 10) 음식

이렇게 나누어진 범주에 해당하는 각 표제어를 설명하는 자세한 방법은 4쪽에 제시된 범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범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되어 있다.

-
- 1) 312-316쪽의 필자들의 명단에서는 사진과 함께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되고 있다.
 - 2) <나의 성경 백과사전>은 필진들이 독자들에게 친근함을 나타내고자 독일어의 2인칭 대명사 ‘너’(Du)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감지되는 문장들이 나올 때 이 서평에서는 우리말 상황에 맞게 ‘여러분’으로 표기하였다.
 - 3) 이 책에 나오는 삽화는 토마스 게오르그(Thomas Georg)가 그렸다.

1) 표제어에 관한 첫 번째 설명은 위에서 언급한 10개의 표제어 중 하나 (예를 들어 인물 ‘벤야민’)를 제시하고, 2) 그 표제어를 작은 이모티콘으로 표현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표제어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를 보여 준다. 3) 그리고 그 표제어 밑에 파란색 글씨로 설명하고자 하는 표제어에 대한 정보를 알려 준다. 4) 그 정보 다음에는 그 표제어와 관련된 성경의 역사나 이야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왜 거기에 나오는지 알려 준다. 5) 그 다음으로는 제시된 표제어와 연결 지어 알아야 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제안하고, 6) 이어서 그 표제어와 관련된 관련 성경 구절들을 제시하는데, 핵심적인 본문은 굵은 글씨체를 사용하여 어린이들이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 7) 마지막으로 주어진 표제어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다른 표제어들이 제시되어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관심 분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3. 표제어들의 확대 설명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을 때 설명이 필요한 표제어들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나열되어 있는데 의문이 생기거나 정보가 필요하면 이 백과사전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백과사전은 이렇게 단순한 표제어만 설명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표제어들이나 인물들 혹은 당시의 생활상에 대해서도 설명을 확대해 나간다.

위에서 제시된 기본적인 표제어들을 넘어서는 확대된 표제어들의 범주는 앞에서 설명한 “성경에 나오는 표제어들에 관한 사전의 설명 방식” 10개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과사전은 성경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주제를 확대해서 설명한다.

3.1. 인물들

이 사전에서 표제어를 확대해서 설명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인물들에 대한 정보다. 독일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나오고(8쪽) 제일 마지막에 베드로(Petrus)가 소개된다. 이렇게 이 사전은 성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인물을 설명하는 방식은,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보면, 우선 아브라함의 생애를 요약하는 방식으로 보여 준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은 그러한 요약을 확대하여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의 성경 본문들을 제시하면서 설명한다. 마지막에는 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것인지 찾아 보라고 어린이 독자들에게 제안하며, 그것과 관련된 히브리서 본문 11:8-13이 제시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화살표는 그와 관련된 연관어를 제시하며 아브라함을 둘러싼 인물들을 계속해서 탐구해 보도록 안내하고 있다.

3.2. 성경 읽기 방법

이렇게 인물을 확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41-43쪽은 구약의 책들과 신약의 책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44쪽은 어린이들이 스스로 성경 읽기를 계획할 수 있는 길을 알려 준다. 그것을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계획: 성경 탐구 주사위를 이용한 성경 읽기

이 책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백과사전 44쪽에 나와 있는 도안을 복사하여 그것으로 주사위를 만들어 성경을 읽을 때 적용해 보도록 한다. 이 주사위는 성경 본문을 읽을 때 나오는 이야기에 관해서 주사위가 지시하는 대로 1) 성경의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 2) 그 이야기가 발생하는 날짜, 3) 그 본문들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활동, 4) 등장하는 인물들, 5) 그 본문을 읽으면서 생겨나는 의문점들을 알아보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일방적인 방법으로 성경의 내용을 전달할 때보다는, 성경을 읽는 어린이 독자들이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계획: 성경 본문을 POZEK 단어들을 가지고 탐구하기

이 계획은 성경 본문을 독일어의 알파벳 머리글자를 이용하여 읽는 방법이다. POZEK은 독일어의 Personen(인물들)의 P, Ort(장소)의 O, Zeit(시간)의 Z, Ereignis(사건)의 E, Kontext(상황/문맥)의 K를 의미한다. 이것 역시 1단계와 유사하지만 1단계의 성경 독자들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많은 어린

이들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방식을 적용해서 성경을 읽는다면 독자들은 읽고자 하는 본문에 나오는 구체적인 인물들, 그 이야기의 발생 장소, 그 사건이 일어난 역사적인 시간, 그리고 그 사건의 내용과 결과를 쉽게 파악할 것이다.

세 번째 계획: 성경 읽기의 5단계

이 계획은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들 개인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읽기는 다음의 5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기도하기 → 2단계: 읽기 → 3단계: 생각하기 → 4단계: 발견하기 → 5단계: 기도하기

위와 같은 5단계는 독자들로 하여금 1단계부터 하나님과 교감을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도록 이끌어가며, 2단계는 독자들로 하여금 본문을 주목하여 읽도록 도와준다. 3단계는 본문을 읽은 후 그 본문을 통해서 경험되는 하나님, 예수님 혹은 성령을 인식하게 하고, 그 과정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선한 역할과 악한 역할을 알아보며, 그것들이 개인에게 어떤 요청, 약속, 혹은 경고의 의미가 주어지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4단계는 그렇게 본문을 읽은 후 개인에게 특별히 중요한 부분을 심사숙고해 보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게 한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마무리 단계로 1단계가 기도로 시작했던 것처럼 기도로 마무리하며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발견한 기쁨, 감사, 부탁할 내용 등을 하나님에게 말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려 준다.

위와 같이 다양한 방식으로 어린이들에 성경 읽기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단지 어린이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가르쳐 주는 교사들에게도 유익한 지침이 될 것으로 보인다.

3.3. 성경에 등장하는 노동과 직업

〈나의 성경 백과사전〉은 성경의 생활상을 어린이들이 알기 쉽게 알려 주고자 성경에 나오는 노동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3.3.1. 목축업과 농업

제일 먼저 소개하는 노동에 대한 범주는 인간들이 지상에서 생활하면서 만들어 내는 일들을 소개한다. 특히 성경의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며 장소 이동을 하는 목축업자인 동시에 목동들이었다고 소개한다. 이어서 사냥꾼, 농부, 올리브 농사꾼, 포도 농사꾼을 소개한다. 개개의 표제어들은 간략하지만 매우 구체적이고 그것과 관련된 성경 본문들을 제시하여 각각의 노동과 직업들이 성경의 세계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한다. 여러 가지 노동과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23쪽에서 개괄적으로 소개되고 해당 페이지를 지시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찾아보도록 하였다. 그중에서도 23쪽 안에는 성경의 시대에 존재했던 직업들로 노예들, 강제 노동, 하인/머슴, 일용 노동자를 소개한다. 이 직업들은 성경에서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들로 성경 읽기를 위해서 이해와 설명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3.3.2. 빵과 과자 만들기

또한 성경을 이해하고자 할 때 필요한 것은 당시의 음식 문화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나라 개역성경 전통은 서양에서 ‘빵’이라 부르는 것을 ‘떡’으로 번역해 왔다. 이것은 성경을 우리의 토양과 문화라는 입장에서 빨리 받아들이고 이해하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말한 직업과 관련해서 목축업 문화와 농업 문화는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빵의 문화와 쌀의 문화는 근본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성경에 나오는 음식 문화의 중요한 요소인 빵에 관하여 잘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이 책은 50-51쪽에서 빵과 과자를 설명하면서 그 재료가 되는 밀과 보리를 설명한다. 이어서 곡식을 탈곡하는 도구로 도리깨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후에 알곡을 선별하는 까부르기(키질하기)와 알곡의 껍질을 벗겨 낸 왕겨를 설명한다. 이어서 그렇게 껍질을 벗겨 낸 곡식을 맷돌로 갈아내는 과정과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밀가루와 보리가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그리고 빵을 부풀리는 재료인 누룩을 설명한 후에 빵 굽기와 과자 만들기를 소개하면서 그것과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소개하여 당시의 음식 문화를 직접 찾아보도록 하고 있다.

3.3.3. 집안일과 수공업

이 책은 많은 집안일들을 소개해 준다. 물 길어오기, 청소하기, 옷 만들기, 요리하기와 빵 굽기 같은 것들이다. 성경의 시대에 살았던 어린이들은 간단한 일들을 자주자주 해야만 했다. 여인들의 임무는 물레와 뜨개질을 통해서 옷을 만드는 것과 빵을 굽는 것이었다. 특히 옷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이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으며, 주식으로 먹는 음식들과 절기 음식을 보여 준다. 특히 빵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긴 시간과 방법과 노력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111쪽은 성경에 등장하는 수공업에 대한 설명을 일목요연하게 진술해 나간다. 먼저 성경의 시대에 자신의 집을 스스로 지을 수 없었던 사람은 건축 수공업자나 건축업자들을 고용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건축 수공업자들과 건축업자들을 알려 준다. 그 다음에 나오는 수공업은 토기장이에 관한 것으로 성경의 시대에 음식이나 물건을 담기 위해서 중요한 그릇들을 만들었다는 것과 토기를 만드는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한다. 그 다음 수공업은 직물직공/천막 제조공/염색 기술자가 나오고 그와 관련된 재료와 만드는 방법도 간략하게 소개해 준다.

또 다른 수공업으로 대장장이/철세공사와 금세공사/은세공사에 대한 설명이 나온다. 특히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두발가인을 예로 들면서 그가 이 모든 금속세공사들의 조상이라고 알려 준다. 철과 금과 은을 다루고 물건을 만드는 과정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으며, 철을 다루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블레셋인들이 그 기술을 다른 민족에게 유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이야기도 주목을 끈다. 또한 금과 은을 세공하는 과정은 장신구와 성전의 장식이나 건축을 위해서 중요한 직업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마지막으로 다루어지는 수공업은 기름을 만드는 사람들과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기름을 부음으로 권력이 부여되고, 이것으로 ‘기름 부음받은 자’라는 단어가 생겨날 정도로 기름을 생산하는 일과 관련된 일이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

3.3.4. 군주와 지배자들과 국가를 위한 노동

158쪽은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로 왕들, 국가의 업무와 재정 등 다양한 일들을 관리하기 위한 사람들을 소개한다. 그중에서도 성경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직업으로는 관리자와 집안의 관리자에 해당하는 호주(戶主)가 있

다. 이들은 가정의 유지와 운영을 하였고 시종, 노예들, 가축과 돈과 소작인들을 관리하여 주인의 금고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다. 다른 직업으로는 서기관이 있는데, 성경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몰랐다. 이들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왕실의 문서를 관리하는 일을 하였다. 그리고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로 종이 있다. 이들은 노예, 시종, 신하, 관리들을 의미하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다. 왕의 일을 맡아 관리하는 사람들은 관청의 공무원집행자들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왕의 지시를 받아 국가의 중대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성경의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직업은 군대와 관련된 직업이다. 이 직업으로는 병사와 무기를 나르는 사람, 군인의 장수들이 있다.

다음으로 주목을 끄는 성경의 직업은 법관들(사사들)이 있다. 성경의 법관들은 정식 판사라기보다는 오히려 한 민족이나 부족의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성경의 책은 사사기이다. 그 다음 주목을 끄는 관직은 지방 장관이다. 이것은 지배자를 대신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직업이다. 다음의 직업으로 부역 감독관이 나오고, 이어서 사형집행인이 나오며, 어떤 장소나 성문이나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서술된다. 그리고 성경의 시대에 ‘부정한’ 사람들의 모델로 소개되는 관세징수원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이것들 모두는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직업들로 성경 당시의 문화와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3.3.5. 물 위에서 하는 노동

또한 물 위에서 일하는 직업과 무역에 관한 직업도 눈여겨볼 내용이다. 제일 먼저 거론되는 직업은 어부와 물고기 상인이다. 그리고 배와 관련된 직업은 뱃사람과 항해사이다. 무역상이나 상인들은 큰 이익을 거두는 사람들로 소개되지만 동시에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직업들이었다. 특히 (해상) 무역이나 상업을 통해서 나오는 물건들이나 물품들은 성경에 나오는 문화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다.

3.3.6. 하나님과 종교를 위한 노동

마지막으로 이 책이 소개하는 중요한 직업은 종교와 관련된 것이다. 그 내용의 중요성 때문에 이 책은 268쪽과 305쪽을 할애하여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제일 먼저 소개되는 직업은 경건한 학자들이며 평신도 종교지

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며, 이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사두개인들을 소개한다. 또한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환전상이 나오고, 이어지는 305쪽은 비둘기와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율법학자들과 교사들(랍비들), 예언자, 점쟁이가 소개된다. 필자는 이와 같은 서술들을 보면서 성경의 세계를 알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역사적이고 문화적이며 종교적인 것 모두를 아우르는 것임을 다시 확인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이 책에 표제어로 나오는 개념들과 정보들을 매우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 구체적인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4. 지도

<나의 성경 백과사전>이 주는 또 다른 유익함은 성경의 역사를 지도를 통해서 보여 주는 것이다. 지도는 대략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경로를 보여 준다. 어린이들은 이 지도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확인할 수 있고 각 여정과 관련된 성경의 본문을 찾아서 읽음으로 그 이야기들의 역사 무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14쪽이 소개하는 모세 시대의 이집트와 가나안 지도는 성경에 나오는 장소들이 어느 곳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면서도 구약학 분야의 논쟁이 되는 출애굽의 세 가지 경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지도에서 주목하게 되는 또 다른 내용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 정세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구약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이스라엘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대였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북 왕국과 남 왕국으로 분열된 이후 강대국으로 등장했던 나라는 아시리아였다. 57쪽에 나오는 지도는 먼저 아시리아의 이스라엘 정복 과정을 보여 주고, 이어서 신 바벨론 제국의 등장과 확장 과정, 그리고 쇠락의 길을 가던 아시리아가 이집트와 연합하려고 했던 시도들을 보여 준다. 그리고 다시 페르시아가 신 바벨론을 정복하여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후 이스라엘을 정복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렇게 지도를 이용하여 구약의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과정은 성경의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

이어서 132쪽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이후 가나안에 정착한 시기의 지도를 소개하고, 133쪽은 다윗 시대의 지도, 134쪽은 예수 시대의 지도를 소개한다. 특히 예수 시대의 지도와 관련해서는 예수의 행적을 소개하

는 장소들을 제시해 줌으로 복음서 이해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리고 135쪽 하단은 신약성경의 배경이 되고 있는 로마 제국의 지도를 통해서 신약성경 시대가 로마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계속해서 137쪽의 지도는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다가 헤브론에 정착하는 이야기를 구체적인 성경 구절들을 제시하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152쪽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 가는 과정을, 201쪽의 나사렛 지도는 그 장소가 성경의 다른 지명과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알려 준다. 그리고 212쪽의 팔레스타인 지도는 그 명칭이 블레셋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을 설명하며,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던 지명들을 보여 줌으로 그들이 가나안에 먼저 살았던 사람들임을 알려 준다. 마지막으로 214-215쪽의 지도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과 관련된 것이며, 306-307쪽의 지도는 바울의 2/3차 선교 여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준다. 물론 이 지도의 구성은 모두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재구성되어 있다.

3.5. 종교와 문화

3.5.1. 성경의 절기/축일들

무엇보다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관련해서 생겨난 절기/축일들일 것이다(76-77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절기/축일들을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며, 절기/축일의 내용은 수확에 대한 감사와 그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감사하는 것이다. 절기/축일에 즈음하여 성전에서는 짐승이나 땅의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쳤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식을 하며 슬퍼하는 절기/축일의 날도 있었는데, 이 절기/축일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삶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 절기/축일들은 부림절, 초승달 축일, 안식일, 유월절, 성전수복절, 무교절, 초막절, 첫 수확절, 오순절, 신년축일, 대속죄일, 초막절이다. 이 책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소개하고자 중앙에 둥그런 원으로 달력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달력의 특징은 맨 중앙에 현재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태양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커진 원으로는 이스라엘의 달(月)력을 제시하여 현대인들과 성경에 나오는 절기와 시간 차를 인식하게 도와준다. 그 다음에는 제일 큰 달력을 만들어 각 계절별로 생산되는 농산물과 기후를 소개하여 각 계절별 농산물 수확과 이스라엘 절기가 서로 연결되고 있다는 사

실을 알게 해 준다. 우리는 이런 이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어떤 면에서는 농경 문화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들을 자신들의 신앙의 역사로 인식하는 과정을 겪었음을 깨닫게 된다.

3.5.2. 음식과 향신료

어떤 종교나 문화도 음식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특히 성경에 나오는 음식이나 향신료, 식물이나 동물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은유(metaphor)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면서 만나는 음식이나 채소나 과일들에 대한 이해 역시 성경의 세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먼저 94쪽은 채소와 과일을 소개한다. 이 책은 이미 성경 안에 멜론, 무화과, 포도가 언급되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신약성경의 시대에는 감귤류의 열매와 각종 견과류, 건포도가 존재했음을 서술한다. 그러면서도 여기서는 야곱을 둘러싸고 레아와 라헬이 경합을 벌일 때 등장하는 합환채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그리고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고자 팔았던 팔죽이 원래는 붉은콩을 재료로 하였음을 알게 해 준다. 계속해서 다산의 상징이 되고 있는 석류가 소개되고, 이어서 올리브, 콩, 대추야자에 대해서 서술해 나간다.

다시 46쪽은 성경에 등장하는 음료수들로 물, 우유, 포도즙과 포도주를 설명한다. 또한 음식물과 관련해서 빠질 수 없는 재료는 향신료이다. 향신료는 크게 양념들과 약초들과 음식을 달게 만드는 재료들이다. 그 종류들은 박하, 향나무, 겨자, 샤프란, 백리향, 월계수, 자초(紫草), 회향, 소금이다. 여기서는 고수, 계피, 꿀, 식초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물과 술과 관련한 더 자세한 설명은 286쪽과 288쪽을 통해서 나온다.

3.5.3. 의복과 생활

이 사전은 성경이 처음으로 언급하는 옷이 무화과 나뭇잎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옷에 관하여 설명해 나간다. 막옷에 이어서 팔을 드러내어 입는 지금의 셔츠 형태의 일상적인 옷을 소개하고, 이어서 왕들이나 제사장들, 왕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 입는 걸침옷/두르개옷을 소개한다. 특히 여기서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 자색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려 준다. 그리고 외투, 절기 때 입는 옷, 기저귀 형태처럼 감아서 입는 옷, 자루 형태의 옷, 수건 형태의 보자기 옷, 치마 형태의 옷을 소개한다. 이어지는 설명은 신발, 허리띠, 머리덮개에 관한 것으로 모두 성경의 관련구절들을 찾아볼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부엌이다. 이 책은 부엌을 설명해 나가면서 예수가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부엌이 없이 열린 공간에서 빵을 구웠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부엌일은 주로 여성의 몫이었고, 그들은 탈곡을 하고, 곡식을 갈며, 밀가루 반죽을 만들었고 넓은 빵을 구웠다. 이런 일들은 주로 마당이나 안뜰에서 이루어졌고, 거기에는 맷돌, 화덕, 커다란 저장 항아리가 있었고 여성들은 그곳에서 함께 일을 하곤 하였다.

그리고 집의 아래쪽 한편에서는 가축들이 밤을 지낼 수 있도록 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요리를 하는 장소가 있었다. 불을 피워 연기가 자연적으로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의 냄비를 사용하여 요리를 하고 고기를 굽기도 하였다. 그리고 집의 위쪽은 가족의 생활이 이루어졌으며 거기서 식사를 하였다. 그곳에는 그릇과 잔들, 저장 항아리, 냄비들을 보관하였다. 다른 일상생활과 관련해서는 126-127쪽에서 악기들과 음악을 다루고 있으며, 188쪽은 성경에 나오는 도량형을 현대인이 한눈에 알아보기 좋게 제시해 주고 있다.

3.5.4. 제물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많은 민족들은 장신구, 무기, 그릇, 음식, 짐승을 신에게 바쳤다. 제물로 바치는 짐승은 소, 양, 염소, 비둘기였고 흠이 없고 건강해야만 했다. 제물을 바치는 다양한 이유들은 감사, 평화를 위한 청원이나 죄 용서를 위한 것들이었다. 제물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짐승제물, 음식제물, 술을 부어 바치는 제물, 희생제물, 번제, 연기로 바치는 제물이다.

이 책은 위와 같이 제물에 대하여 개요를 설명한 후 제물을 바치는 장소, 제단, 도살대, 하나님의 어린양과 같은 표제어들을 차례로 설명해 나간다. 주목을 끄는 것은 속죄제물과 관련된 것이다. 이것은 인간이 저지른 잘못을 짐승에게 전가하는 것이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의 손을 짐승의 머리 위에 얹어 죄를 전가한다는 것을 표시했다. 짐승을 도살할 때 피가 나오면 그 피를 제단의 뿔에 바른다. 나머지 피는 제단의 받침대 아래에 쏟는

다. 그리고 그 짐승은 각을 떠서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렇게 속죄제물을 설명한 후 다시 대속죄일(Jom Kippur)을 설명한다. 계속해서 번제는 한 마리의 짐승을 제단에서 완전하게 불태우는 것임을 설명하고, 감사제사는 하나님에게 감사할 특별한 내용을 담아 짐승제물과 구운 물건을 바치는 것임을 말해 준다. 음식제물과 술로 바치는 제사는 식물로부터 나오는 제물로 피와 관련이 없는 제물이라는 설명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정결제물은 정화의식의 마지막에 바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준다. 그리고 제물의 마지막 설명은 연기제물로서, 이미 도살한 짐승의 기름이나 빵, 과자, 약초를 태워서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3.5.5. 도시, 회당, 성전

성경의 세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는 예루살렘이며,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254-255쪽을 통하여 예루살렘 도시를 모델로 하여 도시를 감시하는 탑, 수원지, 도시의 성벽, 도시로 들어가는 문을 자세하게 알려 준다. 그리고 그 도시를 구성하는 집에 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하며, 그 집에 딸린 작은 문, 큰 문을 소개한다. 그중에서 큰 문은 하늘이나 지옥에 이르는 상징적인 예로 사용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집의 지붕이 거주 공간의 확장된 영역이라는 것을 설명해 준다. 도시와 관련한 마지막 설명은 시장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시장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포로기 이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종교를 회당 중심의 종교로 변화시켜 나갔다. 이 책은 유대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회당(Synagoge)을 설명하면서 그 의미가 ‘모임’이며, 회당에서 안식일을 중심으로 예배가 드려지는 과정을 소개한다. 특히 회당예배의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은 현재 교회의 예배와도 비교가 가능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회당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성전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성경을 보면 성전의 전 단계는 회막이라고 할 수 있고,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여 이스라엘 신앙의 중심지가 되게 하였다. 그래서 그 성전의 이름을 통상적으로 솔로몬 성전(혹은 제1성전)으로 부른다. 책이 소개하는 정보에 의하면 건축한 사람은 솔로몬 왕이고, 건축을 시작한 시간은 기원전 960년이고 7년이 지나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세우는 데 사용된 재료는 돌과 나무와 동이다. 이 성전은 길이가 30미

터, 너비가 10미터, 높이가 15미터였다.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생각했지만, 역사의 흐름 속에서 파괴와 재건이 반복되는 변화를 맞이해야만 했다.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헤롯 대왕이 세운 성전(일명 헤롯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을 완전히 개조하여 새롭게 확장한 것이다. 이 건물은 기원전 20년에 건축이 시작되었고,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완성되었다. 이 성전은 정해진 구역이 있어서 각각의 장소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다. 그 구역은 지성소, 성소,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 남성들의 뜰, 이스라엘 여성들의 뜰, 이방인의 뜰로 구분되었다. 이 건물은 길이 30미터, 너비 10미터, 높이 45미터로 이전의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 성전은 기원후 70년 유대전쟁으로 파괴되었다. 이 책은 이렇게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후 그 성전들이 세워지기까지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해 준다.

3.5.6. 죽음

이 사전에서 성경에 나오는 문화의 표제어를 확대해서 설명하는 마지막 내용은 죽음에 관한 것이다(274쪽). 여기서 제일 먼저 말하는 내용은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다. 죽음은 숨쉬며, 살아가는 것이 중단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죽음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이별을 의미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애도하게 된다. 이렇게 죽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첫 번째 설명은 죽은 자들과의 교감이다. 그것은 바로 죽어가는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고, 사람이 죽으면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이 죽은 자를 존중하여 시신을 처리하고 매장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설명은 장례식에 관한 것이다. 장례식은 슬픔을 나타내는 의식으로 여러 날 동안 진행되었다. 장례식을 치르는 절차와 장례식에서 취하게 되는 몸짓이나 행동들(통곡, 재를 뒤집어 씹, 옷을 찢음)은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도 종종 대하게 되는 것들이다. 죽음과 관련된 마지막 설명은 무당이나 마술사가 죽은 자를 죽음의 자리에서 불러내는 의식이나 마법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미래에 대한 점을 치는 형식 중에 하나로 죽은 자를 불러내서 미래에 대해서 질문하는 행동을 말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시고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4. 성경과 관련된 놀이, 요리 레시피, 개인의 신앙 이야기들

4.1. 성경과 관련된 놀이들과 레시피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책은 어린이들로 하여금 성경의 세계로 탐험을 하도록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어린이들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제공한다. 22쪽에서는 “10킬로그램이 나가는 우박이 사실일까?” 하면서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던져 놓고, 그것이 스위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임을 소개하여 성경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 우박 재앙이 사실일 수 있다는 것을 소개해 준다. 이런 방식으로 같은 페이지에서 성경에 의혹을 가질 수 있는 문제들과 관련된 신빙성 있는 사례들을 제시한다. 이처럼 이 사전은 어린이들이 성경을 읽다가 가지는 의혹을 수수께끼 풀기 같은 형식으로 소개한다.

이렇게 이 사전은 성경을 읽다가 생기는 의문점이나 사례들을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놀이들을 통해 소개하기도 한다. 82쪽은 녹두콩을 직접 키워 보기, 90쪽은 인내심을 요구하는 미카도(Mikado, 나무젓가락) 뽑기 놀이, 191쪽은 빈 가방이나 상자를 활용하여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고, 196쪽은 “가방의 모양으로 된 상자를 이용하여 성경의 이야기를 영화의 필름처럼 만들기”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 사전 109쪽은 유대인들이 부림절에 먹는 ‘하만 주머니’라는 요리 레시피를 상세하게 제시하여 직접 요리해 볼 수 있다. 그리고 163쪽의 마르치판 대추야자 과자 만들기는 중동에서 생산되는 열매를 직접 알 수 있게 해 주고, 177쪽의 이집트식 오이 샐러드, 203쪽 납작 완두콩 요리, 212쪽 호로셋 과자(Horoset) 만들기 역시 성경의 음식들을 상상해 보도록 하는 효과를 주고 있다.

4.2. 개인의 신앙 이야기들

이 사전은 일방적인 정보 전달보다는 독자와 정보 전달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중시한다. 그래서 이 사전은 어린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표제어들 말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주제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신앙의 일상에서 만나게 되는 표제어들 역시 알파벳 순서로 제시되는데, 이것들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이기보다는 어린이나 어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고민들이나 고백을 짧은 이야기 형식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일종의 간증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린이들이 만나

는 신앙적인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이 사전을 읽은 독자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효과를 가진다.

5. 연대표

이 책에서는 역사를 두 가지의 연대표 형식으로 설명한다. 우선 소개되는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을 연대표 형식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168-169쪽의 맨 하단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연대표를 보여 주고 있는데, 우선은 성경에 등장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을 시간적인 순서로 간단하게 해설한다. 그 다음 각 왕들이 살았던 시간을 연대표로 제시하였는데, 그 연대표 맨 위에는 각 왕이 통치했던 당시의 예언자들을 차례로 나열하고, 북이스라엘의 왕들 바로 아래에는 남유다의 왕들을 제시하여 북이스라엘의 활동 시기와 만나는 남유다의 왕들을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시 제일 아래쪽에는 남유다 왕국의 예언자들을 소개하여 예언자들의 활동연대도 쉽게 파악하도록 해주었다. 그리고 170-171쪽은 남유다의 왕들을 시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같은 쪽 하단에 나오는 연대표에서는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끝났기 때문에 남유다의 왕들과 예언자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연대표가 마무리된다.

사전의 마지막 부분(308-311쪽)에서는 성경의 역사를 연대표 형식으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보여 주고 있다. 이 연대표의 유용성은 어린이들이나 성경의 독자들이 성경을 읽는 과정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들이 지금의 시대와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지 알도록 도와주는 데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전의 시간은 원역사(Urgeschichte)에 해당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하여 족장들의 시대, 모세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 탈출의 역사, 다윗 왕의 등장까지 약 천 년의 시간이 흘러간다.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587년에는 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함으로써 이스라엘은 포로기라는 중요한 역사를 경험한다. 기원전 537년 남유다를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등장은 궁극적으로 유대교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 구약의 시대를 마무리하는 단계가 되었음을 알게 해 준다.

이후 신약의 시대로 넘어가는 공백기는 약 400년간 지속되었고,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신약성경에 등장하는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유대인의

왕 헤롯, 로마 총독 빌라도가 신약성경의 역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예수가 탄생하는 서력기원 원년을 기준으로 예수의 활동과 죽음 이후 기원후 약 30년부터 사도들과 최초의 기독교 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소개해 준다.

6. <나의 성경 백과사전>과 한국 교회를 위한 제안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나의 성경 백과사전>의 특징과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었다. 필자는 이렇게 이 사전을 리뷰해 보면서 우리나라 교회의 어린이 교육이 어린이들에게 상상력과 꿈을 고취시켜 주며 그것을 신앙으로 연결하려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어린이 교회교육의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이 사전이 보여 주는 것처럼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는 것이 이제는 상상력과 꿈을 고취시키는 것을 넘어서서 성경의 실제 세계를 알게 하여 그것을 구체적인 신앙으로 연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신앙의 고취는 신앙을 망상이 되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문화는 어린이들의 성경교육에도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지금의 디지털 환경을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모든 정보가 실시간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 필자는 <나의 성경 백과사전>(Mein Bibellexikon)의 서평을 준비하면서 이 사전이 디지털 형식으로 출판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렇게 된다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어린이들이 성경에 호기심을 가질 때 좀 더 빠르게 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어린이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이나 어른들 역시 이런 상황을 빨리 인식하여 성경에 대한 이해를 양방향 소통 형식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필자는 이런 노력으로 어린이들의 교회교육을 위한 좀 더 효과적인 자료와 도구들이 만들어 지기를 제안해 본다.

<주제어>(keywords)

어린이, 성경백과사전, 구약, 신약, 성경의 세계.

children, Biblelexikon, Old testament, New testament, world of Bible.

(투고 일자: 2019년 7월 24일, 심사 일자: 2019년 8월 23일, 게재 확정 일자: 2019년 10월 21일)

<Abstract>

Mein Bibellexikon

(Michael Jahnke, ed., Marienheide: Verlag Bibellesebund, in Kooperation mit Deutsche Bibelgesellschaft und SCM R. Brockhaus, 2012)

Jinsu Im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Diese Rezension ist ein Versuch, *Mein Bibellexikon*, das in der deutschen Kinderbibel-Enzyklopädie herausgestellt ist, kritisch zu lesen und inhaltlich zu bewerten. Dieses Buch wurde erstmals 2012 im Verlag Bibellesebund in Zusammenarbeit mit Deutsche Bibelgesellschaft und SCM R. Brockhaus in Deutschland veröffentlicht. Dieses Buch hilft den Kindern dabei, die Welt und die Zeit der Bibel selbst zu verstehen. Der Herausgeber des Buches, Michael Jahnke, sagt, das Wörterbuch könne ab 8-Jährigen Kinder in Deutschland verwendet werden. Dieses Alter entspricht 9 Jahren oder 10 Jahren Kindern in Korea. Die Berücksichtigung von Kindern zeigt sich in der Tatsache, dass die fast 100 professionellen Autorinnen/Autoren, die Kinder in Kirchen, Gemeinden, Schulen und Privathäusern unterrichten, an der Herstellung dieses Buches teilgenommen hatten.

Dieses Buch besteht aus verschiedenen Bildern (Illustrationen), Emoticons, schönen Farben und Fotografien, so dass Kinder leicht über 1400 Begriffe im Alten und Neuen Testament lesen und verstehen können. Insbesondere, da diese Erklärungen in Form eines Dialogs als in Form einseitiger Kommunikation nicht sind, reizen die Kinder dazu, die Bibel selbst zu entdecken und zu erforschen. Ich kann nicht alle Begriffe, mit denen sich dieses Buch befasst, durch diese Rezension erklären. Ich möchte nur die Struktur und Eigenschaften dieses Buches durch die kritische Bewertung vorstellen. Erst bewerte ich kurz die Begriffe, die von 1400 Begriffen sind und erweitert wurden. Abschließend möchte ich einen einfachen Vorschlag machen, wie dieses Buch zum Lesen der Bibel und zum Unterrichten der Kinder in unseren Kirchen in Korea verwendet werden kann.